

CIPP 모형을 이용한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 평가

채 정 현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에서는 가정학을 응용과학이나 기술과학이 아닌 실천적 비판과학이라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단순히 가정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히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론 능력에 중심을 둔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가정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고등사고정신을 동원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하게된다.

최근 가정교육학에서는 '실천적 추론'은 '실천적 문제 해결', '실천적 문제 중심'이라는 용어로 대신하여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실천적 추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나 수업 지도안의 개발,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효과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수업이 실제로 행하여졌을 때 유발되는 상황이나 과정 또는 이 수업 자체의 문제점 또는 이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수업의 효과 및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이 수업의 시행을 둘러싼 상황, 투입, 과정 및 성과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향후 더 나은 수업을 개발·실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모형의 하나인 CIPP모형은 1960년대 말 미국에서 Stufflebeam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context(상황), input(투입), process(과정), product(산출)의 영문 첫글자를 따서 CIPP라 부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고등학교 가정교과 시간에 실천적 추론을 강조한 수업을 개발하여 실행한 후에 이 수업을 실행하는데 어려운 상황적인 문제(상황), 이 수업 자체의 문제(투입),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상의 문제(과정), 기대되는 수업의 장 단기 효과 및 수업을 받은 학생의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의 변화(산출)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형태는 의사실험 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로서 실험(실천적 추론 가정과수업)을 행한 후에 설문지를 통해서 이 수업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청, 경상에 있는 여섯 곳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777명(실험집단 437명과 비교집단 340명)과 수업을 실행한 가정과 교사들이다.

연구결과, 실천적 추론의 수업은 전통적 여성역할이나 실기위주의 과목을 연상시키는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학생들의 고등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수업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상황평가에서 이 수업을 행하기에는 교사들의 능력 부족, 교실환경의 열악함, 폐쇄적인 학교 분위기, 이 수업의 개발 및 홍보하는 통로의 차단이 문제가 밝혀졌다. 투입평가에서는 우리 나라 문화에 맞지 않는 내용, 유사한 토론 질문의 연속,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 지도안, 과정평가에서는 제한된 차시에 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내용, 조 나누기, 조원 통제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산출평가에서, 실행교사들은 이 수업이 현 가정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 수업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가정과목에 대한 인식이 변화(전통적 여성역할이나 수공기능 훈련을 강조하는 교과로의 인식에서 벗어남)되었으며,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증가되었다.